

「崔致遠」傳의 小說性

李 九 義*

〈차 례〉

- | | |
|-----------|------------|
| 1. 問題 提起 | 4. 挿入詩와 構成 |
| 2. 作者와 갈래 | 5. 意義와 마무리 |
| 3. 創作 動機 | |

1. 問題 提起

지금까지의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우리소설의 효시를 『금오신화』로 잡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소설은 15세기에 출발한 셈이다. 그런데 중국에서 소설이 발생한 시기는 7 ~ 8세기, 또 일본에서 소설이 발생한 시기는 10세기라고 한다. 그렇다면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소설이 15세기에 나타난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이는 고대부터 대륙문화의 전래과정을 두고 봐도 납득이 가지 않는 주장이다.

본고에서 고찰하고자 하는 「崔致遠」傳이라고 하는 것은 소설 「崔孤雲傳」 또는 「崔致遠傳」이 아니라 『殊異傳』에 나오는 「崔致遠」傳, 즉 일명 「仙女紅帑」, 또는 「雙女墳」을 말한다. 필자는 여기서 먼저 다음 몇 가지의 의문을 제기한다. 첫째 이 「최치원」전의 작자는 과연 누구인가하는 점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면 우리소설의 발생이 언제인가를 쉽게 알 수 있게

* 영남대학교 강사

될 것이다. 둘째 이 「최치원」전은 설화인가 아니면 소설인가 하는 점이다. 이 작품이 설화라면 어떤 면에서 설화이고, 설화가 아닌 소설이라면 어떤 면에서 소설인가 하는 것을 밝히게 될 것이다. 셋째 이 「최치원」전에 등장하는 한시의 문제이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한시는 어떤 역할을 하며, 그 기능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작품은 우리 문학사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점이다. 이상의 문제를 두고 위의 목차의 순서대로 본고를 진행해 보기로 한다.

2. 作者와 갈래

우선 「崔致遠」傳의 작자는 고운 자신인가, 아니면 박인량인가, 그것도 아니면 다른 어떤 천재적인 작가인가 하는 문제와 이 「최치원」전이 설화인가 아니면 소설인가 하는 문제부터 해결해 보기로 한다. 먼저 기존 연구자들의 견해를 들어 검토해 본 뒤에 본고를 진행하기로 한다.

曹壽鶴¹⁾은 그의 논문에서 「최치원」전은 우리 소설의 최고라고 하고 있으며, 「최치원」전은 당대의 艷情傳奇小說이라 할 수 있는 「遊仙窟」과 흡사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고 하고 있다. 『수이전』 가운데 「首插石柵」과 「竹筒美女」가 六朝時代의 神怪小說과 동일한 구조의 작품인 것을 보면 이 『殊異傳』을 지을 당시에는 이미 중국의 소설이 우리 나라에 전래하였음을 確證할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최치원」전이 우리 나라 소설로는 最古라고 하면서 우리 소설의 始作을 신라 시대로 잡고 있다.

金重烈²⁾은 「최치원」전을 두고 설화라고 하는 종래의 주장은 잘못이며, 이 「최치원」전은 천재적인 작가의 창의에 의하여 허구로 이루어진 훌륭한 소설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한다. 그리고 그는 따라서 우리 소설사

1) 曹壽鶴, 「崔致遠傳의 小說性」(嶺南語文學, 第2輯, 嶺南語文學會, 1975.)

2) 金重烈, 「韓國小說의 發生考 - 金鰲神話와 「崔致遠」을 中心으로 -」(語文論輯, 第22輯, 高麗大 國語國文學科, 1981.)

의 범위도 상당히 넓고 깊어져서 「최치원」전으로부터 재구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金乾坤³⁾은 ① 『新羅殊異傳』은 최치원이 唐에 있을 때 고변에게 自薦하는 과정에서, 고변이 신선과 기이한 것을 좋아했으므로 자신의 文才를 과시하는 한편 그의 환심을 사서 관직을 얻고자 지은 것이며, 책 제목의 ‘신라’라는 국명도 高駢과의 관계 즉 韓.中관계에서 붙여진 것이며, ② 최치원을 모델로 한 傳奇 「崔致遠」도 최치원 자신이 지은 것이며, 고변에게 자신이 두 여자 귀신과 교환하는 대단한 인물임을 보이기 위해서이며, ③ 「崔致遠」에서 雙女와 화답하면서 하룻밤을 즐기다 헤어지고 自慰詩를 읊는 부분까지는 최치원이 지었으나, 말미의 은거·소요담과 만년의 생애 부분은 후인이 가필한 것이라 하고, ④ 박인량의 『수이전』은 최치원의 『신라수이전』과는 별개의 것으로서, 述而不作的 성격을 띠며 최치원의 것을 증보한 것이 아니라고 하고, ⑤ 김척명의 『신라수이전』개작, 이본 『신라수이전』 저작설은 문면의 지나친 확대 해석으로 논거가 정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설득력을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하고 있다.

위에서 보면, 조수학·김중렬은 「崔致遠」傳을 소설사적 측면에서 다루어서 우리 소설사를 앞당기는 데 공헌했고, 김건곤은 고운의 삶과 「최치원」전과의 관계를 규명하여 고운이 고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러한 傳奇를 지었다고 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최치원」전의 작자는 김건곤이 말한 것처럼 고운 자신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실제 고운의 시에 등장하는 시어와 이 작품에 등장하는 시어가 서로 비슷하다는 점이다. 또 「崔致遠」傳은 우리 나라 소설의 最古라는 조수학의 견해도 존중한다. 그러나 조수학은 「최치원」전의 작자가 『수이전』을 지은 박인량이라고 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여긴다, 이점에 대

3) 金乾坤, “『新羅殊異傳』의 作者와 著作背景”(精神文化研究, 通卷第34號,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8. 5.)

해서 필자는 이 「최치원」전의 작자는 김건곤의 주장과 같이 고운 자신이라고 생각한다. 맨 앞부분과 맨 끝부분을 비록 다른 사람이 붙였다고 할지라도 중간 부분, 즉 고운과 아가씨들의 만남과 헤어짐의 단계는 고운 자신이 지었다고 하겠다. 고운이 그의 나이 20세를 전후해서 이 작품을 창작했으며, 그 목적은 바로 자신의 글재주를 드러내어 입신출세하기 위한 것이다. 이점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이다.

다음으로는 이 「최치원」전을 소설로 보느냐 아니면 설화로 보느냐 하는 점이 논의의 대상이 된다. 이점을 밝히기 위해서는 설화와 소설의 차이점을 밝혀보면 저절로 이 작품이 어느 갈래에 속하는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장덕순은 설화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神話·傳說·民譚 등을 통칭하여 說話라 한다. 이런 說話는 民謠 및 民族敘事詩와 함께 民族文藝 民族詩라고도 불리워 진다. 이 民族詩라는 것은 藝術的 意識이라든가 藝術的 技巧으로써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無意識과 沒技巧 속에서 民衆의 生活 感情과 함께 成長하는 것이다.

이것은 個人作의 소위 藝術詩와 對稱되는 用語로서 이 民族詩는 藝術로서의 洗練이 缺乏되어 있는 反面에 文化나 教養에 依하여 變모되지 않는 自然 그대로의 人間性情을 솔직히 表現하고 있다⁴⁾

라고하여 한 작가에 의하여 예술적인 창의력으로 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생활하는 사이에 저절로 형성되는 民衆共有의 이야기라는 뜻으로 설화를 규정하고 있다. 윗글을 두고 생각해 볼 때, 이 「최치원」전은 설화와는 거리가 먼 것이다. 즉, 이 「최치원」전은 오랫동안 생활하는 사이에 저절로 형성된 민중공유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 「최치원」전은 설령 작자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고 잠정적으로 추론할 수밖에 없지만, 민중

4) 장덕순, 설화문학 연구(서울: 새문사, 1984.), p. 4.

이 공동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이 지은 것이다. 그것도 지은 사람 자신의 문학적 재능을 극도로 발휘하여 시와 문을 안배하고 또 시로써 그 분위기나 감정을 적절히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최치원」전은 설화가 아니라는 것만은 명확하다. 그러면 이 「최치원」전은 소설, 그 가운데서도 傳奇小說인가? 이점에 대해 다음 두 분의 견해를 들어보고 논의를 계속하기로 한다.

임형택은 전기소설이 설화와 구별되는 특징으로 두가지 점을 들고 있다. 즉, ㉠작가의 창작성 및 문식의 가미, ㉡사회 현실의 보다 풍부한 반영⁵⁾이 그것이다. 또 박희병은 전기소설이 갖는 특징을 ㉠전기소설에서는 인물과 환경이 구체적으로 묘사되고 서술된다. ㉡전기소설에 있어 시간의 본질은 성장과 변화·형상으로 표상된다. ㉢설화와 전기소설은 구체성이나 시간개념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그 주인공의 미학적 특질에 있어서도 뚜렷이 구분된다. 전기소설의 핵심을 이룬다고 할 애정문제를 다룬 전기소설의 경우, 섬세하고 고독한 인간상이 그 중요한 미적 표상을 이룬다. ㉣설화와 전기소설은 창작의 목적의식에 있어서도 주목할 만한 차이가 있다. 설화는 기본적으로 자연발생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그러나 전기소설은 뚜렷한 목적의식을 갖고 창작된다. ㉤전기소설은 문식을 중시하기에 對句나 故事를 곧잘 구사한다. 이런 점에서 전기소설은 다른 계열의 한문소설과 그 문체상에서 분명히 구별될 뿐만 아니라, 단순한 설화의 기록이나 설화에 약간의 윤색을 했을 따름인 패설류와도 분명히 구별된다⁶⁾고 하고 있다.

전기소설의 문장을 보면 두 가지 특징이 있다.⁷⁾ 첫째, 전기는 고문을 위주로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지만 간혹 변려체의 구절들도 섞어 쓰고 있

5) 林榮澤, “羅末麗初의 傳奇文學”(韓國漢文學, 第5輯, 韓國漢文學會, 1981.) p.22.

6) 박희병, “한국고전소설의 발생 및 발전단계를 둘러싼 몇몇 문제에 대하여”(관악어문연구, 제17집,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1992) pp.33 ~ 37.

7) 金學壬, 中國文學史, (서울: 新雅社, 1990.二刷) p.331 參照.

다. 특히 어떤 情景를 늘어놓으면서 서술하기를 좋아하여, 변려문의 기법을 빌려쓰는 것이 편리하였다. 이것은 결국 화려한 수사를 중시하게 하여 사건이나 인물의 자세한 묘사를 통한 소설적인 구성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둘째, 전기에는 시가와 의론문이 중간에 끼어 있다. 시가는 불경의 번역문에 운문과 산문이 혼용된 것을 본떠서 전기의 산문에 끼어 쓰게 된다.

이상의 몇 사람의 주장에서 미루어 보건데, 이 「최치원」전이 설화가 아니라 소설이라는 것은 명확하다. 왜냐하면 이 「최치원」전은 작가가 창작을 했고, 또 작가가 창작을 하다 보니 저절로 문식이 가미 됐기 때문이다. 이 「최치원」전을 고운이 창작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는 바로 작가인 고운 자신의 목적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그의 창작 목적은 다음 절에서 논의하겠지만, 그 자신의 입신출세인 것이다. 이점에서 보면 바로 임형택이 말한 것과 같이 사회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최치원」전은 전기소설 가운데 애정소설의 범주에 드는 것이다. 따라서 이 작품 도처에는 작자 자신의 섬세하고 고독한 인간상이 잘 반영되어 있다. 바로 이 작품의 冒頭에 나오는 시를 봐도 잘 알 수 있다. 즉, "늬집 두 아가씨의 무덤인지는 몰라도/적막한 저승에서 봄 시름 몇 해인가/"라는 구절만 봐도 고운의 섬세한 필치와 고독한 인간상이 잘 나타나고 있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최치원」전의 작자는 고운 자신이며, 또 이 작품의 갈래는 설화가 아니라 당나라에서 유행한 것과 같은 傳奇의 한 유형이다. 그러면 이 「최치원」전을 지은 동기와 목적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고찰해 보기로 한다.

3. 創作 動機

이 「최치원」전의 생성 배경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먼

저 고찰하기 위해 고운의 생애를 한번 보면 다음과 같다. 이 「최치원」전을 지을 당시 그의 나이는 18세 以後일 것이다. 그의 나이 18세 되던 해 9월, 즉 서기 874년에 그는 禮部侍郎 裴繼이 主試였던 制科에 應試하여 단번에 及第한다. 그리고 그의 나이 20세 되던 해, 즉 서기 876년에 宣州 溧水縣尉로 임명되어 弱冠의 나이에 지방의 행정관이 된다. 이 선주 읍수는 唐나라의 行政 區域上으로는 江南道에 속하며, 지금의 行政 區域上으로는 江蘇省에 속하며, 구체적으로 말하면 江蘇省 溧陽縣이다. 고운은 이 때 『中山覆瓿集』 5卷을 지었으나 지금은 아쉽게도 전하지 않는다. 그리고 일년 뒤, 즉 그의 나이 21세 되던 해 서기 877년에 그는 선주읍수 현위를 사직하고 만다. 그리고 그의 나이 22세 되던 해 그는 고변에게 「長啓」를 올리고, 또 같은 해에 館驛巡官이 되는데, 이 「최치원」전을 지은 시기는 이보다 앞선 그의 나이 20세에서 21세 때, 즉 그가 읍수현위를 하던 시기라고 생각된다. 여기서 그가 이 傳보다 뒤에 지은 것으로 고변에게 올린 「長啓」의 한 구절을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지난 겨울에 말단의 직위를 그만두고 박학굉사과에 응시하고 싶어서, 산에 은거하려는 결심으로 잠깐 은퇴하여 학문이 바다에 이를 것을 기약하고 다시 연마하였더니, 녹봉이 남아 있지 않고 또 공부에 필요한 양식이 모자라서 ...(중략)... 태위상공이 멀리 어여쁘게 추천을 하셔 職秩에 넣어서 자취는 鄭驛에 나아가고⁸⁾...(하략) ...

위에서 보면 그가 박학굉사과에 응시하고자 읍수현위 자리를 그만 두고 고변에게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가 이 「최치원」전을 지은 이유는 바로 이 글을 지어서 자신의 글 재주를 고변에게 알리고자 한 것이다. 즉, 이 「최치원」전은 溫卷의 일종으로 당나라 때

8) “前年冬, 罷離末尉, 望應宏詞, 計決居山, 暫爲隱退, 學期至海, 更自瑣磨, 俱祿俸無餘, 書糧不濟...(中略)...太尉相公 迺垂獎識, 便署職秩, 跡趨鄭驛” 『崔文昌侯全集』 p.386 「長啓」

전기소설을 지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소설을 자신의 상관이나 아니면 고위층에 보여 주어 立身出世하고자 한 것과 그 성격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고운은 이 소설을 자신의 입신출세를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 이 소설은 한편으로는 남녀간의 사랑을 희화한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溫卷으로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溫卷이 무엇인가를 한번 알아보기로 한다.

당나라 때 고을에서 과거에 추천된 사람은 먼저 당시의 유명인의 힘을 빌려 시험관에게 성명을 알린 다음, 자신이 지은 글을 바치고 며칠 지나서 또 바쳤는데, 이것을 온권이라 하였다. 「유괴록」, 「전기」같은 것들이 모두 그것이다. 이러한 글들은 여러 가지 문체를 다 갖추었으니 역사적인 글, 시 짓는 재능, 이론문 능력 등을 모두 알 수 있었다”

이처럼 당나라 때 지식인들에게 과거는 그의 생애를 좌우할 만한 중대한 일이었다. 고운이 처음에 과거에 응시하여 합격한 것은 鄉貢이었다. 본래 향공의 시험은 처음에는 吏部에서 주관하다가 뒤에는 禮部로 이관되었다. 고운이 예부시랑 배찬이 주관하는 시험에서 단번에 급제하였다는 말로 미루어 봐도 이러한 정황을 대략 알 수 있다. 향공의 과목은 상당히 많아서 秀才·明鏡·進士·明法·明字·明算·道舉·童子 등 8개 科가 있었다.

當時 士인들이 가장 흥미있게 여겼던 것은 明經·進士의 두 과였다. 명경의 考試科目은 經義였는데 응시자는 반드시 文註에 정통하여야 하고 義와 理를 명확히 알아야 했다. 당시 정부에서 규정한 아홉 가지로, 「禮

9) “唐世舉人，先借當世顯人，以姓名達主司，然後獻投所業，逾數日又投，謂之溫卷，如幽怪錄 傳奇等皆是。蓋此等文備衆體，可見史才詩筆議論。”宋 趙彥衛《雲麓漫抄》卷8，《辭海》中冊，臺灣：中華書局，1985. 5) p. 2750.

記」, 「春秋左氏傳」을 大經으로, 「毛詩」, 「周易」, 「儀禮」를 中經으로, 「周易」, 「尚書」, 「春秋公羊傳」, 「春秋穀梁傳」을 小經으로 하였다. 여기서 그經에 능통한 사람이면 明經이 될 수 있었다.

進士란 ‘士可進受爵祿’이란 뜻으로 隋 煬帝 大業 年間에 시작한 것이다. 唐代的 進士는 甲·乙 두 과로 나누는데, 考試科目은 처음에 時務策을 위주로 다섯 문제를 시험보고, 그 다음 副試로 帖經을 보는데 하나의 小經과 老子的 經文·注疏에서 함께 열 문제를 보았다. 이밖에 雜文 두편을 시험보는데 策과 文이다. 책은 반드시 義·理가 합당하여야 하고 문은 반드시 文律이 서로 통해야 했다. 현종 때 진사시험에 시부를 넣었는데, 雜文을 시험볼 때 처음에는 賦로 하다가 나중에 詩를 첨가시켰다.

이처럼 진사과는 명경과보다 훨씬 어려웠기 때문에 唐代的 名臣으로는 진사과 출신이 비교적 많았다. 진사 가운데 인재가 많은 것은 정부의 엄격한 선발도 이유지만, 시무책과 잡문의 고시와도 깊은 관계가 있다. 왜냐하면 詩·賦·論·策은 응시자들의 사상을 구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유자재로 그들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어서 인재들도 비교적 쉽게 두각을 나타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溫卷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明經이나 進士試驗에 응시하기 이전에 시험관이나 아니면 정부의 요직에 있는 사람에게 자신의 글재주를 알리는 글이다. 고운은 이러한 온권의 일종으로 이 글을 지었으며, 회화를 통하여 자신의 글재주를 자랑하고 있는 것이다. 그의 재주는 선녀의 입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나타내기도¹⁰⁾ 하고 자신이 직접 이야기 하기도 한다. 이 글 가운데 열세 번째 시에서 그러한 편린이 나타난다. 즉,

始聞達路又迷津 길에 이르니 또 나무를 모르겠고
草沒銅臺千古恨 풀더미에 묻힌 동대 천고의 한이요

10) “往來者，皆是鄙夫，今幸遇秀才，氣秀鬢山，可與談玄玄之理” 「崔致遠」傳

10 嶺南語文學 (第29輯)

花開金谷一朝春	꽃피던 금곡원은 하루 아침 봄이네
阮肇劉晨是凡物	완조 유신은 모두 보통 인물이었고
秦皇漢帝非仙骨	진시황 한무제도 선골이 아니었네
當時嘉會杳難追	당시에 좋은 만남 따르기 어렵고
後代遺名徒可悲	후대에 남긴 이름 슬퍼할 뿐
悠然來忽然去	잠시 왔다가 홀연히 가버리는
是知雲雨無常主	비·구름엔 주인이 없는 것을
我來此地逢雙女	여기 와서 두 여인 만난 것은
遙似襄王夢雲雨	저 옛날 양왕의 운우몽과 같으니
大丈夫大丈夫	대장부, 대장부여
壯氣須除兒女恨	씩씩한 기상으로 아녀자의 한 없애
莫將心事戀妖狐	요사스런 여우의 일 그리워 마세

얼핏 보면 고운이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지 않은 것 같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그는 자신의 능력을 阮肇·劉晨과 같으며 또 대장부의 썩썩한 기상을 지니고 있어 아내와의 연분은 없애버리자고 했다.

고운이 이러한 溫卷을 올린 사람은 바로 고변이라고 하겠다. 그는 고변에게 몇 차례의 글을 올렸다. 즉, 「初投獻太尉啓」·「再獻啓」가 여기에 속하며, 그 뒤에 고운이 고변의 막하에 들어가서 서장관이 된 뒤에 그는 고변을 칭송한 紀德詩 30수와 「獻詩啓」를 올렸다. 이 글은 바로 그의 나이 20세를 전후해서 고변에게 올린 것이라 추측된다. 자신의 글재주로 전기소설의 한 유형인 애정소설을 통하여 글을 받는 사람이 흥미를 얻을 수 있게 했으며, 또 그 흥미를 수반하면서 자신의 글재주를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이 「최치원」전을 지을 당시 그는 선주 울수현위에 임명되어, 약관의 나이에 지방행정관을 했다. 그러나 그는 여기에 만족을 얻지 못하고 재도약을 꿈꾸고 있었다. 이러한 그의 생각은 그의 나이 22세 되던 해 그

율수현위를 사직하는 것으로 입증된다.

그는 이 「최치원」전을 지어 立身出世의 방편으로 삼고자 했다. 그가 이 글을 지은 뒤에 고변에게 올린 「初投獻太尉啓」·「再獻啓」·「長啓」 등과 그 성격을 같이 한다고 하겠다.

이 「최치원」전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다. 人定記述·本文, 그리고 評結部分이다. 여기서 인정기술이나 본문은 그가 직접 지은 것이지만, 평결부분은 후대인이 덧붙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글의 본문도 세 단락으로 가를 수 있는데, 만남·歡笑·헤어짐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세 단락으로 구성된 이 글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文속에 포함된 詩이다. 본문 가운데 13수의 시가 전체의 줄거리를 이루고 있고, 문은 보조역할밖에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최치원」전은 詩體文用的 二元的 구성을 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점에 대해서는 다음 항에서 재론할 것이다.

이 글은 온권의 일종으로 지어진 것이다. 이러한 온권은 당나라에 크게 유행했다. 당나라의 과거시험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것이 進士科였는데, 이 진사과를 응시하는 사람은 미리 시험관이나 아니면 시험을 관장하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글을 올려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았다. 고운은 당나라 때 유행한 傳奇小說의 형식을 이용하여 자신의 글솜씨를 자랑하고 있는 것이다. 즉, 이 글은 戲化를 통한 溫卷이라 할 수 있다.

4. 插入詩와 構成

위에서 잠시 언급했듯이 이 「최치원」전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다. 人定記述, 本文, 그리고 評結段階이다. 여기서 인정기술이나 본문은 고운이 지은 것이지만 마지막 평결부분은 후대인이 덧붙여 전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김건곤이 이미 그의 논문에서 이미 밝힌

적이 있다.

이 「최치원」전은 고운과 아가씨들의 만남과 헤어짐으로 이 소설의 시작과 끝을 맺고 있다. 즉, 고운과 두 남자와의 만남, 만나서 서로 시를 주고 받으면서 歡笑함,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가 선녀들과 헤어짐으로 끝을 맺게 된다. 이 본문을 구성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 즉 體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詩이다. 이러한 현상은 조선 시대에 나온 한문소설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예를 들면 김시습이 지은 『금오신화』¹¹⁾의 다섯 작품도 거의 시가 주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최치원」전에는 14수의 시가 들어 있다. 이 14수의 시 가운데 마지막에 나오는 시는 두 구박에 없어 완전한 절구나 율시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이 마지막의 시는 후대인이 지은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가 지은 것은 13수이다. 즉, 이 13수의 시가 본문의 줄거리가 되고 있다. 「최치원」전의 文은 시를 보조하는 역할밖에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文은 用으로 볼 수 있다. 먼저 13수의 시를 들고 나서 다시 구성에 대해서 논의해 보기로 한다.

- ① 誰家二女此遺墳 누 집 두 아가씨의 무덤인 지는 몰라도
 寂寂泉扃幾怨春 적막한 저승에서 봄 시름 몇 해인가
 形影空留溪畔月 모습은 공중에 맴도는데 시내에는 달빛이
 姓名難問塚頭塵 성도 이름도 모르는 무덤엔 잡초만 무성
 芳情倘許通幽夢 유희와 서로 꽃다운 정담을 나눴으면
 永夜何妨慰旅人 나그네의 긴긴밤을 위로할 것인데
 孤館若逢雲雨會 외로운 관사에서 비가 구름 만나듯

11) 『金鰲神話』 다섯 권 가운데 「南炎浮洲志」를 제외 한 나머지 네 권에 등장하는 시는 모두 83편에 이르며 「李生窺牆傳」의 병풍시 18수를 제외한 나머지 65수는 모두 노래로 불렀다. 四言古詩가 3수, 五言古詩가 2수이며 七言絶句가 40수로 가장 많고, 다음은 七言律詩로 18수가 있다. 그리고 短歌가 9수, 長歌가 11수이며 이를 다시 작품별로 분류해 보면, 「萬福寺樓蒲記」에 23수, 「李生窺牆傳」에 30수, 「醉遊浮碧亭記」에 14수, 「龍宮赴宴錄」에 16 수가 들어 있다.

與君繼賦洛川神 그대들과 서로 낙신부를 불렀으면

- ② 幽魂離恨寄孤墳 이별이 서러워 외로운 무덤에 의지한 유혼들
 桃臉柳眉猶帶春 불그레한 얼굴 버들 눈썹이 봄을 맞은듯
 鶴駕難尋三島路 학을 타고 삼신산을 찾아 헤매다가
 鳳釵空墮九泉塵 이내 몸 떨어져 구천의 티끌이 되었네
 當時在世長差客 살아서는 외간 남자 만나기를 부끄러워했건만
 今日含嬌未識人 오늘은 낮 모르는 사람에게 아양을 떠네
 深愧詩詞知妾意 시에다가 저의 뜻 나타내는 것이 부끄러워
 一回延首一傷神 이내 마음 몰라 줄까 애태워 하네

- ③ 往來誰顧路傍墳 오가는 이 그 누가 무덤 돌아 보리요
 鸞鏡鴛衾盡惹塵 난경이나 원앙금침은 티끌 세상의 것
 一死一生天上命 죽고 사는 것은 타고 난 운명이요
 花開花落世間春 꽃은 피었다 지니 세간엔 봄이로다
 每希秦女能拋俗 매양 진녀가 되고파 세상을 버리고
 不學任姬愛媚人 임을 사랑하고 교태부릴 줄 몰라
 欲薦襄王雲雨夢 양왕의 비구름 만난듯한 정으로 모시고져
 千思萬憶損精神 온갖 생각에 괴롭기만 하네

- ④ 莫怪藏名姓 성과 이름 밝히지 않음 이상히 생각 마오
 孤魂畏俗人 외로운 영혼이 세상 사람 두려워 하기 때문이니
 欲將心事說 이내 마음은
 能許暫相親 잠시나마 서로 친해졌으면.....

- ⑤ 偶把狂詞題孤墳 도리에 어긋난 말로 옛무덤에 읊조리니
 豈期仙女問風塵 선녀가 풍진의 일 묻기를 바라라

翠襟猶帶瓊花艷 취금이 경화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니
 紅袖應含玉樹春 붉은 소매는 옥수의 봄을 맞이한듯
 偏隱姓名欺俗客 성명을 몰래 숨겨 속세의 나그네 속이고
 巧裁文字惱詩人 잘 다듬은 글솜씨 시인을 괴롭히네
 斷腸唯願陪歡笑 애태우네, 그대와 환소하고파
 祝禱千靈與萬神 천만 신령에게 빌고 또 비네

- ⑥ 青鳥無端報事由 푸른 새가 무단히 사유를 아뢰니
 暫時相憶淚雙流 잠시 생각에 눈물이 줄줄
 今宵若不逢仙質 오늘 밤 선녀를 만나지 못하면
 判却殘生入地求 땅 속에라도 들어가 찾아 헤매리

이상이 孤雲과 두 선녀, 즉 八娘과 九娘과의 만남이 시작되는 도입과 발단의 단계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고운이 우연히 무덤 앞을 지나면서 ①을 읊조리고 관사에 돌아오니, 갑자기 손에 紅帛를 쥔 가냘픈 한 여자, 즉 翠襟이 나타나 고운에게 글을 전한다. 여기서 홍대는 물론 사연을 적은 두루마리이다. 그러나 이 홍대가 암시하는 것은 어떤 상서로움, 그리고 뜨거운 마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중국에서는 붉은색을 吉兆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취금은 바로 八娘·九娘子의 여종이라 할 수 있다. ②는 八娘이 고운에 화답하는 시이고, ③은 九娘이 고운에게 화답하는 시이다. 그리고 ④는 八娘·九娘이 공동으로 지은 것이라 할 수 있다. ②·③을 보면, 두 수의 시는 모두 외로움에 대한 하소연이다. 그것도 살아있는 사람의 외로움이 아니라 죽은 사람의 외로움이다. 꽃다운 나이에 이승을 하직했으니 애처롭기도 하다. 봄이 오고 가고 계절이 바뀌는 것을 무덤 속에서도 알고 있으며, 이성과의 교제를 하고 싶은 생각이 일어나기도 한다. 그러나 자신들의 그 정을 전할 길이 없다. 이승에 있을 때는 처녀의 몸이기 때문에 외간 남자를 함부로 만나지도 못했으며, 자신은 秦

女, 秦나라 繆公의 딸 弄玉처럼 세상을 버리고 봉황을 타고 날아가지도 못했다. 다시 말하면 사랑 한번 해보지 못하고 죽었으니 애통하기 그지없다. 그래서 두 남자가 공통으로 읊조린 시를 마지막 폭에 써놓았다. 그것이 바로 ④이다.

이 시는 앞의 두 수의 시와는 달리 五言으로 되어 있다. 칠언은 장중하며 긴박감이 적은 반면에 오언은 장중하지는 않지만 긴박감이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오언으로 선녀들의 긴박 내지는 절실함을 시의 형식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다. 속인들이 두려워 성명을 감추었지만, 지금은 고운과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고운이 마음 속으로 기뻐하면서 화답한 시를 취금을 통해 남자들에게 보내는데, 그것이 ⑤·⑥이다.

⑤·⑥에서 보면, 선비가 옛무덤을 지나며 읊조렸던 사실은 도리에 어긋난다고 했다. 그러나 성과 이름을 속인 남자들의 글솜씨는 자신을 괴롭힌다고 했다. 선비가 중히 여겨야 할 것은 도를 지키는 것이다. 따라서 선비가 지켜야 도리를 지키지 못하고 아녀자를 생각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그러나 그 자신이 아직 완전히 세속의 정리를 벗어나지 못했으며, 더욱이 그 자신이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있는 현실에서야 어찌 선녀에 대한 그리움이 없겠는가? 따라서 그는 선녀들과의 만남을 갈구하고 있는 것이다. 즉, 선녀들을 만나게 해 달라고 천만 신령께 빌기도 하고, 단약 선녀를 만나지 못하면 땅 속이라도 들어가 찾고야 말겠다는 그의 강한 의지가 위에서 나타나고 있다.

여기까지는 고운이 선녀와 만나기 전의 상황을 시로 읊은 것이며, 다음은 그가 선녀들과 다시 만난 순간부터 서로 시를 주고 받은 것이다.

⑦ 芳宵幸得暫相親	좋은 밤에 다행히 서로 만난건만
何事無言對暮春	늦은 봄에 무슨 일로 말이 없는가
將謂得知秦室婦	아니, 진나라 소씨부인인 줄 알았더니

不知元是息夫人 본디 초나라 식부인인 줄은 몰랐네

- ⑧ 金波滿目泛長空 긴 하늘 달빛이 눈에 가득한데
 千里愁心處處同 아득히 수심은 곳곳에 같구나
 輪影動無迷舊路 옛길 어긋남 없이 달은 굴러가고
 桂花開不待春風 봄바람 기다리지 않고 계화는 피네
 圓輝漸皎三更外 밤이 깊어 가니 달빛은 더욱 빛나고
 離思偏傷一望中 헤어지기 애달픈 마음 저 달빛 속에 있네
 練色舒時分錦帳 색실이 펼쳐질 때 비단장막 나뉘고
 珪模映處透珠瓏 옥홀 무늬 비치는 곳엔 옥구슬 꿰뚫어
 人間遠別腸堪斷 서로 이별하니 애를 끊을 것 같고
 泉下孤眠恨莫窮 황천에 외로이 누웠으니 한은 끝이 없네
 每羨嫦娥多計校 부럽고 부러워라 항아의 빈틈없는 생각
 能拋香閣到仙宮 향락을 버리고 선궁에 이를 수 있었으니

- ⑨ 聞語知君不是賢 말을 들어 보니 그대는 어질지 못하니
 應緣慣與女奴眠 관습에 따라 여종과 같이 자야겠구료
 無端嫁得風狂漢 뜻밖에도 바람둥이에게 시집가게 되어
 強被輕言辱地仙 억지로 경박한 말 받아 지상선을 욕되게 했네

- ⑩ 五百年來始遇賢 오백년 만에 처음으로 어진이 만나서
 且歡今夜得雙眠 기쁘구나, 오늘밤 함께 잘 수 있으니
 芳心莫怪親狂客 꽃다운 마음, 광객과 친함 괴이히 여기지 마오
 曾向春風占謫仙 일찍이 봄바람으로 귀양온 신선이기 바랐고녀.

⑦은 고운이 두 낭자와 통성명을 하고 난 뒤에 읊은 시이다. 고운이 두 낭자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치원은 바다 건너 반도의 보잘 것 없는 사

랍으로, 세상에서 말단 벼슬을 하고 있는 사람¹²⁾”이라고 하여 자신을 낮추어 소개하고 있다. 또 그는 시에서 두 남자를 가리켜 “처음에는 秦나라 竇滔의 아내인 蘇氏婦人인 줄 알았더니, 본디 초나라 문왕이 식땅을 정벌하여 얻은 息媯와 같은 사람인 줄은 몰랐다.”고 한다. 진나라의 소씨 부인은 빈방을 지키면서 回文詩를 지어 남편의 마음이 돌아오기를 기다린 사람이요, 식부인은 楚나라 文王이 식땅에서 얻은 부인으로 一婦가 二夫를 섬긴 사람이다. 여기서 보면 두 남자는 처녀가 아니라 이미 혼인을 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고운이 이와 같은 시를 읊조리자 붉은 치마를 입은 선녀가 “식부인은 두 남자를 섬겼지만 저는 한 사람의 지아비도 섬기지 않았습니다.”라고 하여 고운이 읊은 시에 대하여 항의조로 말하고 있다.

고운이 남자들의 고향과 가족들에 대해서 물으니 “저와 동생은 울수현 초성군 장씨의 두 딸입니다. 선친께서는 縣吏도 하지 못하셨고 다만 고을의 호족으로 부유하고 사치스러웠습니다. 제가 열 여덟, 동생이 열 여섯살 때 부모들은 저는 소금장수에게 동생은 차장수에게 시집을 보냈습니다.¹³⁾”라고 하여 두 자매의 불우한 혼인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두 자매는 결혼에 대해 만족을 느끼지 못하자 답답한 마음을 마음 속에 간직하여 일찍이 요절하게 되었다 한다. 이러한 말을 듣자 고운은 ⑧과 같은 시를 읊조려 두 여인을 위로하고 있다. ⑧과 같은 시를 읊조리자 두 여인과 고운, 즉 세 사람은 그 사이가 더욱 가까워지며 이에 세 사람은 번갈아 가며 한 구절씩을 읊어 한 수의 칠언율시를 이루는데, 이 시의 체재는 달이며, 운은 평성 風韻이다. ⑨도 앞 두 句는 언니가 뒤 두 句는 동생이 읊조린 것이며, 이에 고운이 화답한 것이 ⑩이다. 여기까지가 고운과 두 선녀가 만나 서로 시를 주고 받으며 정담을 나눈 것이다. 이렇게

12) ‘致遠海島微生，風塵末吏’『殊異傳』

13) ‘兒與小妹，溧水縣楚城鄉，張氏之二女也，先父不爲縣吏，獨占鄉豪，富似銅山，似同金谷，及姊年十八，妹年十六，父母論嫁，阿奴則定婚鹽商，小妹則許嫁茗估’『殊異傳』

5. 意義와 마무리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하여 결론으로 삼고, 이 「최치원」전의 의의를 밝혀 본다.

필자는 이 「최치원」전의 작자는 김진곤의 주장과 같이 고운 자신이라고 생각한다. 맨 앞부분과 맨 끝부분을 비록 다른 사람이 붙였다고 할지라도 중간 부분, 즉 고운과 아가씨들의 만남과 헤어짐의 단계는 고운 자신이 지었다고 하겠다. 고운이 그의 나이 20세를 전후해서 이 작품을 창작했으며, 그 목적은 바로 자신의 글재주를 드러내어 입신출세하기 위한 것이다.

이 「최치원」전이 설화가 아니라 소설이라는 것은 명확하다. 왜냐하면 이 「최치원」전은 고운이 창작한 것이며, 따라서 이 작품 속에는 작자인 고운 자신의 문식과 목적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이점에서 보면 이 작품은 사회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최치원」전은 전기소설 가운데 애정소설의 범주에 드는 것이다. 따라서 이 작품 도처에는 작자 자신의 섬세하고 고독한 인간상이 잘 반영되어 있다. 바로 이 작품의 冒頭에 나오는 시의 "뉘집 두 아가씨의 무덤인지는 몰라도/적막한 저승에서 봄 시름 몇 해인가/"라는 첫구절만 봐도 고운의 섬세한 필치와 고독한 인간상이 잘 나타나고 있다.

고운은 그의 나이 22세 되던 해(서기878년) 그는 高駢에게 「長啓」를 올리고, 또 같은 해에 館驛巡官이 되는데, 이 「최치원」전을 지은 시기는 이보다 앞선 그의 나이 20세에서 21세 때, 즉 그가 율수현위를 하던 시기라고 생각된다.

그가 이 「최치원」전을 지은 이유는 바로 이 글을 지어서 자신의 글 재주를 고변에게 알리고자 한 것이다. 즉, 이 「최치원」전은 溫卷의 일종으로 당나라 때 전기소설을 지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소설을 자신의 상관이나 아니면 고위층에 보여 주어 立身出世하고자 한 것과 그 성격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최치원전」은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처음 부분과 끝부분을 제외한 중간부분을 다시 세 부분으로 가를 수 있다. 첫번째는 바로 고운과 두 낭자들의 만남이 이루어 지는 단계이고, 두번째는 고운과 두 낭자가 서로 만나 시를 주고 받으면서 歡笑하는 단계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운과 두 낭자가 서로 이별하는 단계인데, 이는 바로 삶과 죽음이라는 서로 다른 세계에 속해 있는 인물들이기에 어쩔 수 없이 넘어야 하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다.

이 「최치원전」은 詩體文用의 구성을 하고 있다. 그만큼 이 작품에서는 插入詩가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이 작품에서 삽입시는 霧圍氣造成·感情傳達·思想傳達·對象描寫·才能誇示·慰撫의 기능을 하고 있다. 즉, 고운과 두 낭자가 서로 주고 받는 시는 그때 그때의 분위기를 잘 반영하고 있다. 또 이 삽입시는 고운과 두 낭자 사이의 감정과 사상을 잘 전달하고 있는데, 고운은 이 감정과 사상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시의 길이를 길고 짧게하여 감정의 무거움과 조급함을 나타내고 있으며, 또 그의 생각의 일단을 전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작품에서 삽입시는 대상묘사에 있어서도 일익을 하고 있다. 예를 들면 고운과 두 낭자가 주고 받은 마지막 시, "비긴 달이 창에 비치니 붉은 얼굴 싸늘해지고/ 새벽바람 소머에 살랑이자 얼굴을 쩡그리네/"라고 하는 구절만 봐도 그 묘사의 뛰어난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삽입시를 통하여 고운은 두 낭자 뿐만 아니라 자신의 심정을 위무하고 있으며, 그의 빼어난 詩作솜씨를 은연중 그의 출세를 관장하고 있었던 사람에게 과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 「최치원」전이 나옴으로써 우리 나라 소설사를 앞당기는 역할을 하고 있다. 물론 이 소설은 조수학이 밝힌 바와 같이 당대 전기소설 대표적 작품인 「遊仙窟」의 체제를 다소한 수용했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 소설이 「유선굴」을 모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 이 작품은 당나라 전기소설의 체제를 수용하고 있긴 하지만, 작품을 그대로 모방했다고는 하

지 못한다. 작자인 고운은 당나라에서 활동한 사람이다. 따라서 그는 중국에서 유행한 문학의 갈래 내지는 체제만을 수용했지 어느 작품을 모방하지는 않았다. 그는 중국 사람들과 때를 같이하여 그 때 유행했던 작품을 산출했던 것이다.

따라서 이 작품을 두고 볼 때 당나라에 유행한 전기소설의 유행과 거의 같은 시기인 9세기 말에 우리나라 사람이 지은 소설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최남선이 우리나라 소설의 발생은 15세기라고 한 이후 지금까지 그의 견해를 줄곧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점이 재고의 여지가 있다는 것을 말한다. 비단, 이 「최치원」전에서 뿐만 아니라 고운의 작품 가운데 법장의 전기를 서술한 「法藏和尚傳」에서도 전기소설의 요소가 보이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 작품을 두고 볼 때 우리문학사 가운데 명혼소설의 효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이 명혼소설은 생사를 달리하는 남녀간의 관계를 다룬 이야기이다. 이는 합리적인 사고로는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일이지만 오늘날 까지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있다. 특히 우리서사문학사에서 보면 조선시대에 소설이 유행하기 시작할 때 집중적으로 등장한다. 즉 『금오신화』 가운데 대표작인 「이생규장전」·「만복사저포기」가 명혼소설이며, 『企齋記異』에 실려있는 「하생기우전」 또한 명혼소설이다. 따라서 이들 명혼소설들은 이 「최치원」전과 직·간접적인 관계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으로 본고를 끝맺기로 한다. 여기서 미진한 부분은 다음 기회에 보완할 것을 약속하며, 참고문헌은 각주의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별도로 달지 않는다.